

“지금도 섬뜩...” 광주시청에 걸린 ‘12·3의 기억’

광주전남촛불행동, 기획 사진전 개막
작년 비상계엄 당시 시민 모습 기록
15일까지...28일 ‘112차 촛불문화제’

“비상계엄 당시를 떠올리면 지금도 섬뜩하지만, 다시는 이 땅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11일 오후 2시 광주시청 1층 로비 중앙에서 기획 사진전 ‘잊지 말자 12·3 내란! 응징하자! 내란 세력!’ 개막식이 열렸다.

광주전남촛불행동이 주최·주관한 이번 전시의 개막식에는 힘을 보탠 박수기·임미란 광주시의원과 나규복 상임대표, 류봉식 광주진보연대 상임대표, 광주시민연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위법·위헌적인 12·3 비상계엄을 잊지 말고 아직 끝나지 않은 내란 세력 청산에 대해 경각심을 갖자는 취지로 마련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기억하기 위한 기획 사진전 ‘잊지 말자 12·3 내란! 응징하자! 내란세력!’이 11일 오후 2시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개막해 오는 15일까지 이어진다. 사진은 한 시민이 자녀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전일 발당245에 걸렸던 현수막이 담긴 전시물을 바라보는 모습.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 기자

된 이번 사진전의 개막식은 개회사, 축하, 기념 촬영, 전시장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전시된 사진 10점은 시민·사진작가로부터 기

탁받은 수백장 가운데 주최 측이 엄선했던 것이다. 각 사진 옆에는 어떤 상황을 담은 것인지 등에 대한 설명 자료도 함께 놓여졌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한 계엄군을 시민들이 저지하는 상황으로 시작해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집회’,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 ‘파면 선고 당일 5·18민주광장’ 등 서울과 광주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외친 시민들의 모습이 시간 순으로 배치됐다.

설명 자료에는 ‘내란 당일’, ‘치밀했던 계획’, ‘파멸적인 내란세력’, ‘광주시민 촛불문화제’ 등의 제목과 당시 상황에 대한 요약이 담겼다.

사진을 유심히 보던 시민들은 ‘남태령 대치’ 등에 대해 “처음 알았는데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민원을 위해 시정을 찾았다는 방종구(82)씨는 “TV로만 보던 장면을 사진으로 보니 훨씬 선명하다”며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뉴스를 보며 큰 일이었다는 걸 실감했는데, 사진전을 통해 다시 보니 민주주의를 외쳤던 평범한 사람들 덕에 모두의 일상이 지켜졌다는 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한 시민은 설명 자료 중 ‘케이블타이 수갑’까

지 동원됐다는 재연 사진을 보고 “이미 철저히 준비했던 상황이었네”라며 혀를 찼다.

비상계엄 선포 이전부터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조성진(30)씨는 “우려가 현실이 되는 걸 보며 파면 선고 전까지 매주 촛불을 들었다”며 “정부가 바뀌어도 완전한 청산은 남아 있다. 국민 주권이 온전히 실현될 때까지 계속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나규복 광주전남촛불행동 상임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눴던 ‘윤석열 내란세력’을 잊지 말자는 취지로 이번 사진전을 마련했다”며 “전시를 통해 내란 시도를 똑똑히 기억하고, 내란 세력의 책임을 끝까지 물어 진정한 국민주권 실현과 사회 대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시는 오는 15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리며, 광주전남촛불행동은 오는 28일 동구 금남로 일원에서 ‘제112차 내란세력 완전청산 광주시민촛불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성학 기자

목포서 ‘출생 미등록’ 2개월 男兒 사망

숙박업소 출산·보름간 사진 방치

20대 남녀 검거...영양 공급 부족

목포 한 숙박업소에 머물며 낳은 아이를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키우다 결국 죽게 한 2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A(20대)씨와 B(20대·여)씨를 조사하고 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연인 관계를 이어 가던 이들은 목포 한 숙박업소에서 키우던 생후 2개월 무렵 남아를 죽게하고 시신을 보름여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9일 늦은 오후 경찰 당국엔 B씨의 지인으로부터 그가 A씨에 의해 감금 상태며 아 이도 죽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 확인에 나선 경찰은 그곳에서 A씨와 B씨의 자녀가 숨져 있는 걸 발견했다. 이에 경찰은 A씨와 B씨를 순차적으로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B씨는 해당 숙박업소에 있었으나 A씨는 별도로 살던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됐다.

조사 결과 B씨는 10여개월 전부터 해당 숙박업소에서 생활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곳을 종종 찾았으나, 함께 생활하진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다 이들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자 B씨가 주로 양육을 맡아왔다. A씨는

분유 등을 사오며 가끔 상태를 살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이는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한 탓에 약 2주 전에 사망했다.

이와 관련, A씨 등은 아이의 사망에 대해 “분유를 제대로 주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숨진 아이는 A씨와 B씨가 정식 부부가 아니 었던 탓에 누구의 호적에도 올라가지 못한 ‘출생 미등록’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아이의 사망 원인과 시점 등을 정확히 확인 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안재영 기자

양식장 감전 사고 외국인 2명 모두 사망

〈속보〉고흥 한 양식장에서 감전된 외국인 2명이 모두 사망했다.

11일 고흥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14분께 고흥군 두원면 새우 양식장에서 감전 사고를 당한 베트남 국적 A(30대)씨가 같은 날 오후 9시께 숨졌다.

감전을 당해 함께 병원으로 이송된 태국 국적 B(20대)씨는 이보다 앞서 숨을 거뒀다.

당시 A씨는 해당 양식장의 담수정화시설 수 중 모터를 정비하다가, B씨는 동료를 구조하기 위해 시설 안에 들어갔다가 감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식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안재영 기자



11일 광주신세계백화점에서 경찰특공대가 수색을 마치고 복귀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구 롯데백화점에 폭탄을 설치하겠다’는 신고가 접수돼 동구에 위치한 롯데백화점과 서구 신세계백화점에 각각 경찰특공대가 투입됐다. /주성학 기자

광주서도 ‘폭발물 협박’...신세계·롯데百 수색 소동

경찰, 50여명 투입...특이사항 無

서울에 이어 광주에서도 백화점을 폭발시키겠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을 벌이는 소동이 벌어졌다.

11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0분께 서울 마포경찰서로부터 ‘폭발물 대응’ 공조 요청을 받았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 5개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고 터뜨리겠다’는 내용의 팩스 문서를 수신, 이를 서울 마포경찰서에 신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받은 문서에는 ‘광주 서구 롯

데백화점’이 포함돼 있었으나, 광주 롯데백화점은 동구에 위치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혹시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서구에 있는 광주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 광주점 등 두 곳에 총 50여명을 급파, 수색에 나섰다. 수색 결과 양쪽 모두 폭발물 발견 등 특이사항이 없어 경찰은 ‘허위 신고’로 보고 있다. 인권위에 온 팩스는 ‘가리사와 다카히로’라는 일본 변호사명의로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송파구 올림픽공원 폭발물 설치 협박과 지난 8일 ‘황산 테러’ 예고 팩스 등도 일본 변호사 명의로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폭발물 협박 소동으로 광주신세계백

화점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 수십명이 대피했다. 또 이로 인해 이들 백화점은 개점 시간인 오전 10시30분을 지키지 못했고, 경찰의 수색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오전 영업을 하지 못했다.

수색이 끝난 후 일터로 복귀한 직원들과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어제 뉴스에서 서울에 폭탄 신고가 접수됐다는 내용을 봤는데, 내 얘기가 될 줄은 몰랐다. 너무 무섭다”며 “왜 무고한 시민들이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하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들은 “협박범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안재영·주성학 기자

60플 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등록번호 : 2023-광주광산-0025

대출상품비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사업자대출

정착자금 1억한도
금리2%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담보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

CMYK